



오색물결 출렁이며 부처님 오셨네

사진으로 보는 연등축제

불기 2545년 연등축제가 4월 29일 조계사 앞 우정국로와 동대문 운동장, 종로거리에서 화려하게 펼쳐졌다. 이날 낮 12시부터 밤 10시까지 불교문화마당(거리축제), 연등법회, 제등행진, 대동천마당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마음 청정 나라 청정'을 주제로 열린 이번 연등축제는 예년에 비해 참가 인원과 연도의 시민들이 많이 늘어 우리나라의 대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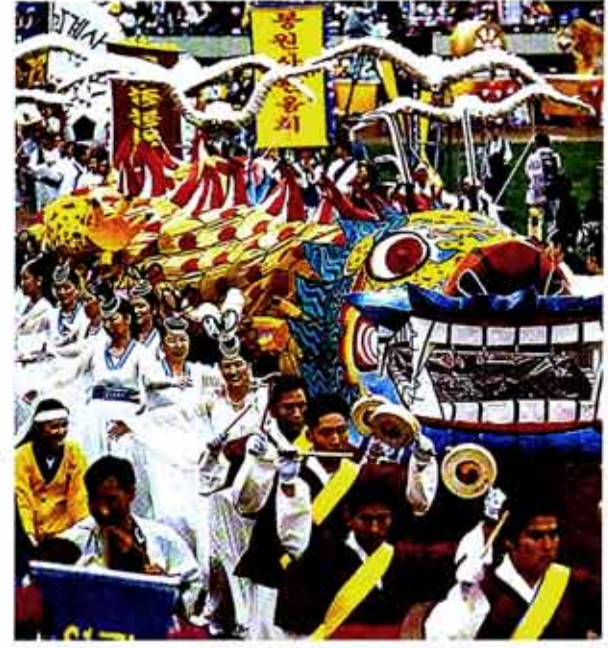
인 축제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각종 창작등이 많이 선보여 종로거리엔 오색물결이 출렁이게 했다.

부산 대구 광주 전주 천안 마산 창원 등 전국 60여 도시에서도 지역불교위원회 주최로 22, 28, 29일 연등축제와 제등행진을 펼치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연과 세상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고, 서로 사랑하며 나와 남이 함께 이익되는 세상을 만들어 가자'고 사원했다.



◊오늘은 기쁜 날. 동대문운동장에서 열린 마당에 참가한 불자들이 한참 웃음과 함성으로 부처님 오신날을 축하했다.

◊용동 학동 선녀가 우리진 제등행진. 다양한 창작 장엄등으로 시민들에게 불거리를 제공했다.



석주스님 제등행진 동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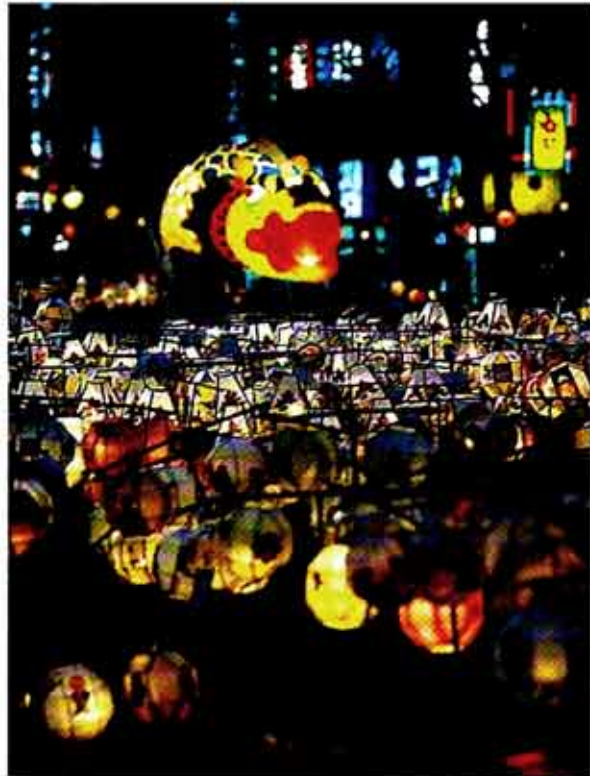
○조계종 원로 석주스님은 동대문운동장에서 탑골공원 앞에 마련된 관람대까지 걸어서 행진, 노익장을 과시했다. 스님은 관람대에 내내 앉아 지나는 행렬에 손을 들어 격려도 아끼지 않았다. 세수 95세인 석주스님은 힘들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관람이"하며 연신 환한 미소를 띠었다. 올해 처음 살처된 관람대에는 각종 단 대표와 주한 베네수엘라 대사, 하와이 네덜 말레이시아 불교도협회 회장과 주한외국인 200여명이 앉아 행렬을 박수로써 맞았다.

영산재·깨침이 '눈길'

○태고종과 진각종 화계사는 종단과 사찰의 특징을 보여주는 행진을 해 눈길을 끌었다. 태고종 총무원엔 차량으로 특설무대를 꾸며 제등행진을 하는 동안 영산재의 일부분을 공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를 보유한 종단의 특성을 살렸다는 평가. 진각종은 종단캐릭터인 깨침이 조형물을 행렬 앞뒤에 배치해 종단의 이미지를 알렸다. 화계사는 국제선원에서 수행중인 20여명의 스님들이 미국 중국 이스라엘 독일 벨기에 영국 프랑스 등 각기 자기 나라의 국기를 앞세우고 행진.

단주만들기 단연 인기

○올 부처님 오신날 거리축제에서 불자들이 시민들로부터 단연 인기 끌 끈 것은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회장 정호스님)의 '단주 만들기'. 레크리에이션협회는 8만여 개의 단주알을 준비했으나 행사 시작 3시간만에 재료가 동나 다시 8만여 개를 준비. 그러나 이 역시 종이 나고, 추가로 5만여 개를 다시 제공했으나 이마저도 오후 5시30분경 모두 바닥났다. 1인당 단주알 29개씩을 소비한 것으로 계산할 때 이곳에서 단주를 만들어간 사람은 대략 7200여명.



◊대형 장엄등과 각종 창작등의 오색물결이 종로거리를 수놓았다. 농민선문의 축구공등 팔각등이 눈길을 끌었다.



◊연꽃속에 나부신 아기부처님을 태운 반야용선이 동대문운동장에 나타났다.



◊연등과 단주 만들기, 서원달기, 퀴즈대회 등 연등축제 행사에 동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직접 만든 예쁜 연등을 팔아주는 외국인 엄마의 다양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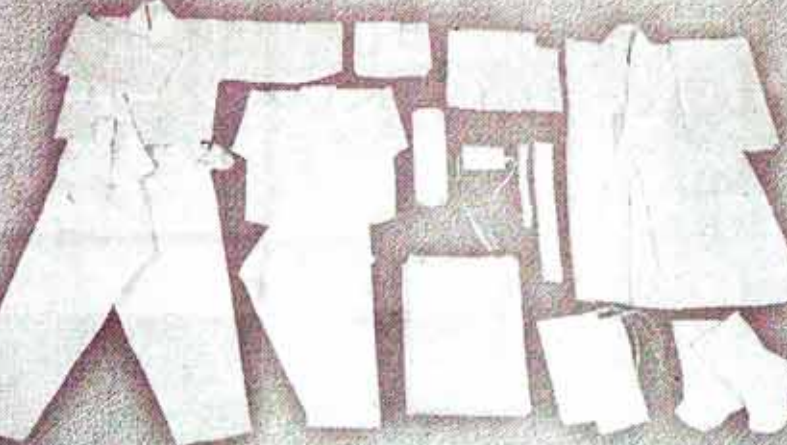
◊북녘땅에 최초로 연등이 밝혀졌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는 4월 20일 신계사터의 탈주위와 온정각 일대에 한하여 연등을 밝히고 평화통일을 기원했다. 이 연등은 15일까지 밝혀진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희망을'이란 주제로 열린 제3회 불교인권문화제. 인정한 장사의 등 인기가수가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나눔의 집 위안부 할머니들과 네팔 등 외국인 노동자 불자들이 다수 동참했다.

불교 TV가 정성들여 준비한 삼베명품전

孝道佛事



1,400,000원

특별할인가 (남·여) 각 1,120,000원
스님들의 수의도 짓고 있습니다.



삼베양말

특별할인가 (남·여) 각 1set(6족) 20,000원

수분흡수와 방산기능은 일반면의 4배. 무좀이나 피염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30,000원



삼베목수건

특별할인가 1개 10,000원 / 크기 24cm(너비)×262cm(길이)

삼베목수건은 식물성섬유와 동물성섬유의 장점을 살려 제작해 삼베목수건의 사각사각한 느낌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20,000원



불교텔레비전주식회사
서울마포구 마포동 418 금호전기빌딩
대표전화: 02-3270-3300 팩스: 02-3270-3498



• 불교TV 후원회 전화: ARS(02)700-1032(한 통화액 2,000원의 후원보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불교TV 시청 방법: 전국 각 지역의 종합유선방송(SO)에 연락하여 신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주문전화(불교TV사업부)
02-3270-3366~7